

章楠의 《醫門棒喝·六氣陰陽論》 譯註

金圭烈·洪元植

I . 序 論

한의학은 戰國時代 初에서 後漢時代의 사이에 著述된 것으로 推測¹⁾되는 《黃帝內經》에서 이미 그 理論的 基礎가 確立되었으며, 東漢 張仲景의 《傷寒論》에서 그 임상적 기초가 定立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로 金元四大家를 비롯하여 明代의 張景岳을 중심으로 한 溫補派 醫家, 清代의 葉天士를 중심으로 한 溫病學派 醫家 등 歷代의 수 많은 醫家들을 通하여, 그 學術理論과 臨床經驗의 兩方面에 걸쳐서 일면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 또한 諸家가 醫理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국한된 閱歷 經驗에 입각하여 편벽되거나 그릇된 理論을 제출함으로써, 後世에 오히려 醫理를 더욱 알기 어렵게 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필자는 한의학의 原典이라 할 수 있는 《內經》《傷寒論》의 原旨와 《周易》의 이치를 融會하여 一以貫之하고, 歷代 諸家들의 그릇된 점을 駁正하여 醫理를 바로 闡明했다고 여겨지는, 清代 著名 溫病學家인 章楠의 《醫門棒喝》을 翻譯, 註解하기로 하였다.

이에 먼저 章楠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本論에 天人合一의 道와 醫易同源의 관점에서 《周易》의 卦象을 가지고 六氣陰陽을 精僻하게 論述한, 《醫門棒喝》의 首篇인 「六氣陰陽論」을 우선 翻譯하고 註를 달았으며, 뒤에 案語를 두었다. 翻譯은 될 수 있는 한 直譯을 爲主로 하고, 뜻이 잘 통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약간의 意譯을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속에 보충어를 삽입하였다.

1) 表天根·洪元植, 「黃帝內經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慶熙大學敎 韓醫科大學, 慶熙韓醫大論文集, 1983, P. 105.

II. 章楠의 生涯

章楠은 淸의 乾隆 後期에 出生하여 道光 十五年(A.D. 1835) 以後까지 생존했던((구체적인 生卒年代는 未詳함)) 著名 醫學家로서, 字는 虛谷이며, 會稽(지금의 浙江 紹興)人이다. 어려서 몸이 약하여 病을 많이 앓은 까닭에 岐黃의 學을 좋아했는데, 儒釋의 理를 參照하여 潛心研究, 溯流窮源((물길을 따라 올라가 根源을 찾음))하기를 20여년 동안 하였으며, 뒤에 또 廣東, 河北, 蘇州 等地를 遊歷하다가 醫業을 하며 學問을 쌓은 者가 있으면 모두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아 마침내 醫術에 精通하게 되었다. 醫經의 原旨를 알고 나서는 諸家의 치우친 流弊의 害를 보고서 이를 補救하고자, 마침내 《醫門棒喝 初集》 四卷(1825)을 著述하였는데, 「六氣陰陽論」 「太極五行發揮」 等 30여 篇의 醫論을 包括하고 있으며, 醫理, 診法 및 內科 各科의 病證證治를 섞어 論하고 아울러 醫案를 덧붙였다. 그의 學術思想은 葉天士와 薛生白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溫病의 辨證證治에 자못 發揮한 바가 있으며, 劉河間, 李東垣, 朱震亨, 張景岳 等の 說에 대하여 精粹를 擷取하고, 또 능히 中肯한 評論을 提出하였으며, 雜病辨治上에서도 또한 비교적 풍부한 經驗이 있었다. 《傷寒論》이 말은 간결한데 뜻은 깊고 理法이 微妙해서 독자가 領會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에 明代 方有執의 《傷寒論條辨》을 參考, 重篇하여, 風傷衛·寒傷營·風寒兩傷營衛²⁾로 綱을 삼아 各條의 病證을 闡述하여, 《傷寒論本旨(醫門棒喝 二集)》 九卷(1835年)를 撰하였다. 또 葉天士의 「溫熱論」을 注解하여 外感溫病의 治法을 삼고, 薛生白의 「濕熱條辨」을 註釋하여 暑病의 治法을 삼아서, 《傷寒論》의 不足함을 보충하였다.³⁾

또 最近에 浙江省에서 그의 遺稿 《靈素節注類篇(醫門棒喝 3集)》⁴⁾이 發掘, 出版되었는데, 潘澄濂은 그 前言에서, “章氏は 治學 態度가 嚴謹하여 根源을 밝혀서 要旨를 領會할 것을 강조하고 남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 하며 陋習을 답습

2) 風傷衛는 桂枝湯證((太陽中風證)), 寒傷營은 麻黃湯證((太陽傷寒證)), 風寒兩傷營衛는 大青龍湯證에 각각 相當함.

3) 李經緯 主篇, 《中醫人物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8, P. 581

4) 원래는 《靈素節注類篇》이 《醫門棒喝 二集》으로 되어 있었으나, 《傷寒論本旨》가 이보다 먼저 出版되어 《醫門棒喝 二集》이 뒤에 따라 《靈素節注類篇》은 부득이 《醫門棒喝 三集》으로 改題되었음((章楠, 《靈素節注類篇》의 點校說明 一)).

하는 것을 반대하였는데, 학술상 적지 않은 高明한 見解를 두었으며, 더우기 晩年에 이르러서는 心血을 경주하여 이 《靈樞》《素問》을 闡注한 專著를 完成했는데, 辨釋이 詳明하여 알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어 놓았고(解粘去縛), 더우기 허다한 獨到的인 부분이 있어서 後世에 비교적 커다란 깨우침을 주었다.”고 말하였다.⁵⁾

III. 翻 譯 方 法

번역은 臺灣의 自由出版社에서 中國醫學名著叢書의 하나로 影印, 重刊하고, 서울 大星文化社에서 이를 다시 影印, 出版(1989년)한 宣統元年(己酉, A.D.1909) 改良石印본인 《增批評點 醫門棒喝》(會稽 章虛谷 先生 編注, 山陰 受業 孫延祉 震遠 參訂, 山陰 雪帆居士 田晉元 評點, 海寧 王孟英 士雄 增批評點, 苧城三友 益齋 精校石印發行)⁶⁾을 底本으로 하였으며, 될 수 있는 한 直譯을 爲主로 하고, 뜻이 잘 通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약간의 意譯을 하였으며,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단어, 속어나 일부 전문용어와 고유명사, 引用文의 出典 等에 대하여 註를 달았으며, 어려운 말이라도 설명이 간단한 것은 그 뒤의 (())속에 표기하였고, 補充語나 原文은 ()속에 표기하였으며, 圖書名은 《 》속에, 論文名은 「 」속에, 각각 표기하였다.

底本은 當代 儒醫인 陳一平氏가 秘藏해온 것으로, 원래는 初集과 二集으로 모두 九卷 十冊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自由出版社에서 重印할 때, 文山遜父 蕭天石 先生이 上下 二冊으로 만들어, 上冊에는 初集의 卷一에서 二集의 卷二까지를, 下冊에는 卷三에서 卷九까지를 각각 실었으며, 다시 新篇 總目을 만들어 페이지 수를 표시해 놓았다. 이번 연구 발표는 《醫門棒喝》全 內容中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初集의 首篇인 「六氣陰陽論」만을 翻譯, 註解하였으며, 끝에 간단하게 按語를 두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역을 계속하되, 발표는 原文의 篇次에 관계

5) 章楠, 《靈素節注類篇(醫門棒喝 三集)》,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6) 底本の 題字 서명에, “宣統元年歲次己酉六月 陽湖汪洵書端”이라고 써여 있는 것으로 보아, 本書의 發行年度는 A.D.1909年인 것으로 추정된다.

없이 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편을 발췌하여 먼저 翻譯,發表할 예정이다.

IV. 六氣陰陽論

《內經》에 말한 六氣란 風寒暑濕燥火이다. 六氣는 각각 다르며 變化가 無窮하지만 要諦는 陰陽을 벗어나지 않는데, 陰陽은 混元一氣⁷⁾를 말미암아 生한다. 一氣는 太極이며, 陰陽은 易의 二이고, 六氣는 易의 六爻이며, 八風⁸⁾ 方位는 곧 八卦이다.

陰陽이 相生함에 六氣가 變化하며 八風이 轉旋하여 萬物이 生長化收藏하고 疾病瘡痒에 이르게 됨이, 마치 易의 陰陽이 相交함에 六爻가 變動하여 八卦, 六十四卦, 三百八十四爻⁹⁾에 이르고 錯綜交易함에 吉凶悔吝의 兆가 無窮하게 變化하여 나타남과 같다. 羲聖((伏羲聖人))이 八卦를 作하여 象을 垂하심과 軒岐((軒轅 黃帝와 岐伯 天師))가 六氣를 論하여 病을 밝히심이 한가지로 陰陽 太極의 源에서 나왔으니, 前聖과 後聖이 그 揆가 하나이다.

대저 六氣는 陰陽을 말미암아 化한 바이나 여전히 陰陽의 體를 떠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까닭으로 寒은 陰이 되고, 火는 陽이 되며, 風은 陰中の 陽이 되고, 暑는 陽中の 陰이 되며, 濕은 陰이 되는데 火와 더불어 合하면 暑라 이름하며, 風이 火와 더불어 合하면 熱燥로 化하니 陽에 屬하고, 風이 寒과 더불어 合하면 清燥로 化하니 陰에 屬한다. 이것이 陰陽이 變化하여 六氣의 다름을 이룸이다.

만약 五行과 合하여 四時에 配한다면, 風木은 春을 主하고, 火는 夏를 主하고, 燥金은 秋를 主하고, 寒水는 冬을 主하고, 濕土는 四季를 貫하며 長夏 未月

7) 混元一氣: 天地가 나누어지기 이전 陰陽二氣가 混沌未分된 상태의 元氣. 또는 太極. 또는 萬物을 產生하고 構成하는 原始物質. 또는 人身中 父母로부터 來源하는 先天元氣, 또는 生命의 根源.

8) 古人은 自然界의 風이, 그 產生하는 方位의 다름에 따라 性質도 각각 不同하다고 여겨, 風의 方向과 性質에 따라 여덟가지로 나누어 각각 大弱風((南風)), 謀風((西南風)), 剛風((西風)), 大剛風((北風)), 吉風((東北風)), 嬰兒風((東風)), 弱風((東南風))이라고 했는데, 이를 通稱하여 八風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靈樞·九宮八風》을 참조.

9) 每卦가 각각 6爻로 되어있으므로 64卦×6爻=384爻임.

을 주관한다.¹⁰⁾ 대개 土는 본래 先天太極의 廓¹¹⁾으로 後天萬物의 어머니가 되므로 (木火金水의) 四氣를 通貫하며 中을 주관한다.

六氣로써 一歲에 配한다면, 初之氣는 風木이고, 二之氣는 君火이고, 三之氣는 相火이고, 四之氣는 濕土이고, 五之氣는 燥金이고, 六之氣는 寒水인데, 每氣가 각기 60일 남짓을 주하여 一歲를 周한다. 三之氣와 四之氣에서 火와 濕이 相交하는데, 습하면 暑가 되므로 夏至後의 病名을 暑라 하며, 濕土는 季夏에 습을 주관한다. 이는 단지 主氣를 말한 것인데, 主氣는 地氣가 되어 靜하여 有常하므로 歲歲에 이와 같다.

또 客氣가 있는데 天氣가 되어 動하여 恒常하지 아니하므로 每年 轉換하니, 예컨대 子午年에는 初之氣가 寒水이고, 丑未年에는 初之氣가 風木이고, 寅申年에는 初之氣가 君火이고, 卯酉年에는 初之氣가 濕土이고, 辰戌年에는 初之氣가 相火이고, 巳亥年에는 初之氣가 燥金이다.

또 主客五運이 있으니, 主運은 每年 木運으로부터 시작하여 水運에 이르러 끝나는데 每年 이와 같으며, 客運은 예컨대 甲己는 土로 化하니 甲己年은 土運이 되고, 乙庚은 金으로 化하니 乙庚年은 金運이 되는 類인데, 每運이 72일 남짓을 주하며, 一年은 初運으로 統括한다.¹²⁾ 主는 內를 주하고 客은 外를 주관하는데, 主客의 運氣가 天地間에 流行하면, 亢害勝復¹³⁾의 變이 있게 되어 人의 災病

10) 1년 四時 열 두달을 地支로 나타내면, 正月(寅) 孟春, 二月(卯) 仲春, 三月(辰) 季春, 四月(巳) 孟夏, 五月(午) 仲夏, 六月(未) 季夏, 七月(申) 孟秋, 八月(酉) 仲秋, 九月(戌) 季秋, 十月(亥) 孟冬, 十一月(子) 仲冬, 十二月(丑) 季冬이 되는데, 四時의 마지막 달인 辰戌丑未月를 通稱하여 四季라고 하며, 五行屬性上 모두 土에 속한다. 春(木), 夏(火), 秋(金), 冬(水), 春(木)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상 辰戌丑未의 土月이 이를 매개하므로 濕土가 四季를 貫한다고 한 것이다. 四季 中 未月은, 여름의 火旺之節에서 가을의 金旺之節로 넘어가는 중간에 위치하고 雨濕이 심한 장마철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長夏라고 하며, 主氣의 濕土之氣가 주관한다.

11) 廓은, ①터비어 있다 ②광활하다 ③둘레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 根源 또는 根本바탕을 의미하는 뜻함. “土가 先天太極의 廓이 된다.”는 말에 대한 자세한 논술은 《醫門棒喝·太極五行發揮》를 참조.

12) 이를 運氣學上 용어로 大運 또는 中運이라고 하는데, 一年의 전반적인 氣候變化를 주관한다.

13) 亢害란 五運 中에 어느 한 氣가 過極, 偏盛하면, 五行 相互間의 資生, 制約의 平衡관계가 깨져서 반드시 萬物의 生化에 害가 됨을 말하는데, 人身 中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니, 어느 한 臟器의 기능이 亢盛하면 반드시 다른 臟器의 기능에 해를 미치게 된다. 勝復이란 勝氣((上半年에 某種의 지

이 作하게 된다. 이상은 그 대략을 말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內經》¹⁴⁾에 있다.

그런데 五行의 火는 하나인데 六氣의 火가 둘인 것은 어째서인가? 丹溪는 말하기를, “君火는 人火이고 相火는 天火이며, 君火는 名으로써 하고 相火는 位으로써 한다.”¹⁵⁾고 하였는데, 나는 가만히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대저 六氣가 天地間에 流行함은 天人合一의 道가 되니, 다만 君相으로써 作用을 나눴을 뿐이지만 君相으로써 天人을 나눴을 뿐이 아니라, ‘君火以名’ 또한 마땅히 《內經》 原文에 있는대로 ‘名’字를 ‘明’字로 해야 하니¹⁶⁾ 어째서인가? 대개 光明洞徹한 것은 火의 體이니 이를 이름하여 君이라 했고, 溫煦燔灼하는 것은 火의 用이니 이를 이름하여 相이라고 한 것이다. 用이 없으면 體가 行하지 못하고, 體가 없으면 用이 立하지 못한다. 火의 體用이 流行함에 四氣가 이를 좇아 變하여 造化의 功을 이룸이 꼭 君相이 天下를 經綸함과 같다. 그렇다면 장차 근거를 대겠는가? 《內經》에 가로되, “心은 君主의 官이니 神明이 여기에서 出한다.”¹⁷⁾고 하였는데, (이는) 心의 神明이 靈光이 炯炯함이, 흡사 君이 正南面하여 함이 없으되 하지

나친 기후가 발생하거나, 또는 五運 中에 어떠한 運이 偏勝되는 것을 모두 勝氣라 함))와 復氣((上半年에 某種의 勝氣가 發生되면 下半年에 이와 相反된 氣가 발생하여 이를 報復하는 氣))의 관계를 말한 것으로, 1年 中의 上半年에 太過한 勝氣가 있으면 下半年엔 반드시 이와 相反되는 復氣가 있게 된다. 예컨대, 上半年에 熱氣가 偏盛하면 下半年에 寒氣가 또한 偏盛되어 이를 보복하게 되는 것이다. 또 예를 들면, 木運이 不及하면 金氣가 木을 勝하므로, 木이 鬱하여 火가 生하고, 火는 金을 이기는 것을 復이라고 한다. 勝復의 일반적인 규율은, 먼저 勝함이 있으면 뒤에 반드시 復되어 그 勝한 것을 보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勝復의 氣가 매년 있는 것은 아니며, 古人이 自然氣候의 相勝相制 現象을 설명하고, 나아가 질병유행과 病機 및 치료의 관계를 탐구한 것이다. 亢害勝復의 變化情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素問·至真要大論》을 참조.

14) 이상의 運氣變化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른바 《素問》의 運氣七篇에 나와 있는데 즉, 「天元紀大論」「五運行大論」「六微旨大論」 등은 주로 運氣變化의 規律을, 「氣交變大論」「五常政大論」「六元正紀大論」 등은 주로 運氣變化의 情況을, 「至真要大論」은 주로 亢害勝復의 變化情況과 制方治法, 病機 등을 논술하고 있다.

15) 朱震亨, 《格致餘論·相火論》에, “火有二, 曰君火, 人火也; 曰相火, 天火也. 火內陰而外陽, 主乎動者也, 故凡動皆屬火. 以名而言, 形氣相生, 配于五行, 故謂之君; 以位而言, 生于虛無, 守位稟命, 因其動而可見, 故謂之相.”이라고 하였음((서울, 여강출판사 刊 《中國醫學大系14》, 1987, P.667)).

16) 《素問·天元紀大論》에, “君火以明, 相火以位”로 되어 있음.

17) 《素問·靈蘭秘典論》에 나옴.

못함이 없는 것이 마치 上天이 위에 있으나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음과 같기 때문이니, 비록 소리와 냄새는 없으나 實은 萬機를 主宰함이 神明하여 헤아릴 수 없으므로 人의 心火를 이름하여 君火라 한 것이며, 그 運用施爲하여 氣血을 생하는 것은 相火의 功인데, 相火가 비록 腎에 寓하나 心火와 더불어 貫通하니, 진실로 先天 混元의 뿌리에서 함께 나온 때문이다. 相으로부터 以下는 모두 君에게 聽命하므로 經에 말하기를 “君이 밝으면 아래가 편안하다.”¹⁸⁾고 했으니, 만약 心神이 恬靜하다면 相火가 奉令하고 妄動하지 아니하여 氣血이 安和하여 患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君火는 體가 되고 相火는 用이 되니, 體用으로 나누면 비록 둘이지만, 그 근원을 궁구해 본다면 其實 一火일 따름이다.

天地의 神明 主宰가 君火이고 陽氣가 流布하여 化生함이 相火인데, 六氣의 順序가 君火의 뒤에 相火가 오는 까닭은 體로부터 用을 發한다는 뜻이며, 相火 뒤에 濕土가 옴은 火가 토를 생하기 때문이다. 君火가 少陰이 되고 相火가 少陽이 되는 것은 陰이 한 번 動함에 陽으로 變함이니, 또한 體로부터 用을 發하는 理致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六氣變化의 機權((權柄))이 火에 있으니, 故로 人의 心志가 感觸하면 相火가 기를 따라 動하여 一身의 氣血이 이를 좇아 運用流行됨이, 天地의 君相火가 動함에 四時가 이를 따라 變化하여 萬物이 生成되는 것과 더불어 그 機括¹⁹⁾이 한가지이니, 이것이 天人合一의 道이다. 人은 天地와 한 뿌리이므로 天地의 陰陽은 곧 人身의 陰陽이며, 天地의 水火는 人身의 血氣와 같고, 五行은 五臟에 配하고, 六氣는 六經에 配하고, 二十八宿는 二十八脈에 合하며²⁰⁾, 日月光華는 耳目의 聰明과 같고, 土石草木은 骨肉毛髮과 같고, 雷電風雨

18) 上同.

19) 機括: 機牙와 箭括. 즉, 弩弓의 화살을 발사하는 장치. 轉하여 治事의 權柄을 비유함.

20) 《靈樞·五十營》에, “天周二十八宿, 宿三十六分, 人氣行一周, 天八分. 日行二十八宿, 人經脈上下左右前後二十八脈, 周身十六丈二尺, 以應二十八宿, 漏水下百刻, 以分晝夜.”라 하였음.

①二十八宿: 古代 天文學의 星座 名稱. 周天之星을 四方으로 나누어 각각 七宿을 두었음. 즉, 東方七宿이 角 亢 氏 房 心 尾 箕이고, 北方七宿이 斗 牛 女 虛 危 室 壁이고, 西方七宿이 奎 婁 胃 昂 畢 參 井이고, 南方七宿이 井 鬼 柳 星 張 翼 轸이니, 모두 합해서 二十八宿임.

②二十八脈: 左右 三陰三陽經 十二脈과 양교맥, 음교맥, 任脈, 督脈을 합하면 모두 28脈임.

는 聲息涕淚와 같고, 江河湖海는 血脈周流와 같고, 骨節交會는 分野度數와 같으니, 微한 것으로부터 著한 것에 이르기까지 符節과 같이 합하며, 一身이 太極의 體를 具하니 一小天地가 된다.

그러므로 六氣가 亢害하면 外感病에 걸리고, 五志가 妄動하면 內傷病에 걸리니, 內傷 外感의 病이 모두 六氣 陰陽이 偏駁된 所致로서, 그 變하는 狀을 論하자면 아마 다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그 綱要를 궁구해 본다면 그 陰陽을 살피는 것일 따름이다. 經에 이르기를, “그 要를 아는 者는 一言에 終하거니와, 그 要를 알지 못하면 無窮한 데로 流散한다〔流散함이 無窮하게 된다〕.”²¹⁾고 했다. 그렇다면 이를 살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험삼아 보건대, 六氣 中에 寒은 陰邪가 되는데, 만약 人의 陽經을 傷하면 發熱하지만 또한 畏寒하기도 하니, 畏寒하는 것은 陰邪의 象이고, 發熱하는 것은 陽經의 徵이다. 만약 寒이 人의 陰經을 傷하면 다만 畏寒할 뿐 發熱하지는 않으니, 陰邪가 陰經에 있으므로 陽의 象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寒邪가 처음에 陽經에 있을 때 풀리지 않으면 傳裏하여 熱邪로 變하니, 이는 陰邪가 人身의 陽氣를 따라 變한 것이다. 만약 寒이 陰經을 傷했는데 扶陽하여 救本하지 않으면 吐利 厥脫하게 되니, 이는 身中의 陽氣가 陰邪를 따라 亡한 것이다. 또 火濕이 습한 氣를 暑라고 이름하는데, 人이 暑邪에 感하면, 타고난 체질이 火가 많으면 暑가 이를 따라서 燥로 化하고, 타고난 체질이 寒이 많으면 暑가 寒을 따라서 濕으로 化하니, 이는 邪의 陰陽이 人身의 陰陽을 따라서 變한 것이다. 또 만약 風邪가 人을 傷했다면, 겨울철에는 傷寒病이 되나 春夏時에는 風溫病이 되니, 이는 邪가 時令의 陰陽을 따라 變한 것이다. 혹은 겨울에 寒에 傷했는데 봄에 이르러 發하여 溫病이 되니, 이는 邪가 오랫동안 鬱滯됨을 因하여 變한 것이다. 혹은 溫病에 涼藥을 지나치게 복용하면 寒病으로 變하니, 이는 藥氣를 因하여 變한 것이다. 內熱이 있는데 밖은 도리어 畏寒하는 것은 表陽이 鬱滯되어서이고, 內寒이 있는데 밖은 도리어 發熱하는 것은 虛陽이 發露되어서이다. 이로써 미루어보건대, 六氣의 變化는 無窮하지만 要論는 類를 따라 隅反²²⁾하여 그 陰陽을 살피는 것일 따름이다.

21) 《素問》의 「六元正氣大論」과 「至眞要大論」에 나옴.

22) 隅反: 類推. 물건에 네 귀퉁이(四隅)가 있는 것은 그중 한 귀퉁이만 들면 나머지 세 귀퉁이가 함께 움직이는 데에서 비롯된 말. 出典: 《論語·述而》에, 子曰: “不憤不啓, 不誨不發, 舉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라 하

그러나 더욱 반드시 알아야 할 그 要諦는, 이른바 六氣의 變化는 機權이 火에 있는 것이 마치 君相이 命을 내리면 天下가 모두 따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劉河間이 이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六氣는 모두 火를 쫓아 化한다고 말하고 寒涼藥으로 主治했던 것이다.²³⁾

그러나 이 이치는 단지 邪를 論할 때 성립할 뿐이지, 病을 論할 때는 성립되지 않는다. 어떠한 까닭인가? 대개 邪氣가 人을 傷함에 人의 타고난 體質을 따라 化함이, 위에 말한 바와 같이, (人의) 타고난 체질이 火가 많으면 暑가 火를 따라 燥로 化하고, 寒이 많으면 暑가 寒을 따라 濕으로 化하는 類와 같은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病을 따라 審察해야지, 혹 이를 알지 못하고 모두 寒涼藥으로 施治한다면, 어찌 잘못되지 않겠는가? 하물며 天地六氣의 火는 본디 人을 傷하기 쉽거니와, 人身의 君火와 相火는 서로 원인이 되어 病이 됨에야! 故로 東垣이 말하기를, “相火는 元氣의 賊이니, 火와 元氣는 兩立하지 못한다.”²⁴⁾고 했는데, 이는 人身의 火를 말한 것이며, 張景岳이 이를 그르게 여겨 말하기를, “相火는 元氣의 근본인데, 어찌 이를 賊이라 할 수 있겠는가?”²⁵⁾라고 했는데, 이 兩說이 모두 각각 理致가 있으니, 어느 한 쪽도 廢할 수 없다. 君火가 妄動함을 因하여 相火가 熾然함은 곧 忿怒 등의 火인데, 欲이 動하여 火가 炎하면 元氣가 耗傷되므로 이를 賊이라고 한 것이니, 《內經》에 “亢盛된 病理的인 火는 元氣를 耗傷한다(壯火食氣).”²⁶⁾고 한 것이 이것이다. 만약 心君이 安泰하면 相火가 奉命하여 묵묵히 化機를 도와 陰陽이 和平해져서 元氣가 이에 힘입어 長生하게 되므로 元氣의 근본이 되니, 《內經》에 “和平한 生理的인 火는 元氣를 生한다(少火生氣).”²⁷⁾고 말한 것이 이것이다. 東垣은 그 變을 論했고, 景岳은 그 常을 말했을 뿐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外感和 內傷에 或寒하고 或熱함이 반드시

있음.

23) 劉河間의 《素問玄機原病式》과, 《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之研究》 및 각종 《中醫(歷代)各家學說》 등을 참조.

24) 李東垣 撰, 《脾胃論·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에 나옴((《東垣十種醫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7, P.86)).

25) 張介賓, 《景岳全書·辨丹溪》에 나옴((《景岳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89, P.)).

26)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나옴.

27) 上同.

人을 因하여 變하며, 虛實 陰陽이 參互錯綜((서로 영향하고 원인이 되어 종횡으로 뒤섞임))하니, 治法도 마땅함을 따라야지 偏執해서는 안된다.

丹溪는 陰陽을 論함에, “經에, 一水가 二火를 이기지 못한다(一水不勝二火)²⁸⁾고 했으므로, 陽은 항상 有餘하고 陰은 항상 부족하다(陽常有餘, 陰常不足).”라고 말하고 滋陰爲主로 立論했는데²⁹⁾, 그 뜻을 헤아려 보면, 六氣에 君相 二火가 있는데 寒水는 다만 一氣이므로, 마침내 陽은 有餘하고 陰은 不足하다고 말한 것이다. 張景岳이 이를 그르게 여겨 말하기를, “世間の 五湖四海는 水가 많고 火는 적다.”고 하고, 이에 “陽은 항상 不足하고, 陰은 항상 有餘하다.”고 말하고, 억지로 大《易》의 扶陽抑陰의 말을 끌어다가 立論하되 助陽爲主로 하였다.

30

가만히 兩家의 論을 보건대, 모두 經典을 引據하여 각각 見解를 두었으나 이처럼 水炭과 같으니, 모두 陰陽의 至理가 아닌 까닭이다. 만약 至理의 所在를 求했다면 어찌 서로 다른 見解를 두었겠는가? 무릇 六氣는 모두 陰陽의 化한 바 이거늘, 어찌 枝葉의 短長을 붙잡고서 곧 根本의 有餘 不足을 말할 수 있겠는가?

《內經》에 “一水不勝二火”라고 한 것은, 痺證의 陰陽이 偏勝한 病을 論한 것이지³¹⁾ 陰陽의 理를 論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君相은 虛名으로 火가 본래 두 가지가 있음이 아님에랴? 만약 자취로써 求할진대, 陽燧³²⁾를 햇빛에 쪼이면 火가 發하고, 송곳으로 나무를 뚫으면 火가 出하고, 金石을 서로 치면 불꽃이 튀며, 煤((石炭))는 土의 類인데 可히 薪을 대신할 수 있으며, 海中에는 밤에 불빛이 있으니, 이는 遍界에 火가 있음이라, 어찌 다만 두 가지일 뿐이겠는가? 또 方諸

28) 《素問·逆調論》에 나오는데, ‘不’字 뒤에 ‘能’字가 더 있음.

29) 朱震亨 撰, 《格致餘論·陽有餘陰不足論》 및 張介賓 撰, 《景岳全書·辨丹溪》를 참조.

30) 張介賓 撰, 《景岳全書·陽不足再辨》《類經附翼·求正錄·大寶論》《類經圖翼·醫易義》 등을 참조. 이에 대한 盧谷 先生의 신랄한 비판이 《醫門棒喝·論景岳書》에 실려 있음.

31) 《素問·逆調論》에, “所以不能凍栗者, 肝一陽也, 心二陽也, 腎孤藏也, 一水不能勝二火, 故不能凍栗, 病名曰骨痺, 是人當變節也.”라 하였음.

32) 陽燧: 옛날에 햇빛으로 불씨를 얻던 凹面의 銅鏡. 1년 중 陽氣가 가장 盛할 때인 陰 五月((午月)) 丙午日에 取火했다고 함((王充, 《論衡·亂龍》)).

33) 달을 對하면 물이 흐르며,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내리고, 땅을 파면 샘이 솟으며, 黃河는 밤낮으로 奔流하되 竭하지 않으니, 이는 水 또한 世界에 遍滿함이다. 진실로 水가 火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또한 火가 적고 水가 많은 것도 아니다. 經에 말하기를, “水火는 陰陽의 徵兆이다.”³³⁾라고 하였으니, 感함을 따라 發現함이 세상에서 사람을 부를 때에 張씨를 부르면 張씨가 응답하고 李氏를 부르면 李氏가 응답하는 것과 같은데, 누가 不足함이 되고 누가 有餘함이 되겠는가? 이 兩家의 說은 모두 戲論이지 實義가 있는 것이 아니다.

大《易》의 扶陽抑陰의 말³⁴⁾에 이르러서는 더욱 마땅히 辨別해야 하니, 可히 醫理를 論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개 《易》은 治世의 道를 論함에 陰陽으로 君子와 小人에 비유하였으므로, 반드시 扶陽抑陰하여 君子의 道가 盛하고 小人の 道가 衰하면 世道가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나 陰陽으로 小人 君子에 비유하는 것은 可하지만, 小人 君子로 陰陽에 비유하는 것은 不可하다. 왜냐하면 治世者는 반드시 小人을 모두 제거함이 좋겠지만, 天地間에 있어서는 陰이 衰하고 陽이 旺하면 이미 亢害의 災가 있음이니, 만약 陰이 盡하며 陽이 孤하(게 되)면, 萬物이 生하지 못하고 天地가 否塞할 텐데 어떻게 世界가 있겠는가? 人身의 陰陽이 곧 天地의 陰陽으로, 하나이지 둘이 아니므로 陰陽이 偏勝하면 病이 되고 陰陽이 孤絶하면 死하니, 이로써 보건대 大《易》의 扶陽抑陰이란 말은, 그것으로 治世를 論할 수는 있어도 治病을 論함은 不可하다.³⁵⁾ 醫가 病을 治함에 반드시 먼저 陰陽의 理를 究明해야 하니, 이를 辨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陰陽을 論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 丹溪나 景岳의 說을 誦하는 者가, 혹은 陽은 항상

33) 方諸: 古代에 月下에서 이슬을 받아 取水하던 그릇으로, 遠古에는 蛤殼을 사용했으나 뒤에 銅鑄를 씀. 《淮南子·天門》: “方諸見月, 則津而爲水.”의 注에, “方諸, 陰燧, 大蛤也. 熟摩令熱, 月盛時以向月下, 則水生, 以銅盤受之, 下水數滴, 先師說然也.”라 하였음.

34) 《素問·陰陽應象對論》에 나옴.

35) 《周易》의 原文에는 ‘扶陽抑陰’이라는 말이 없고, 周易 坤卦의 初六에 대한 朱子の 注에, “夫陰陽者, 造化之本, 不能相無而消長有常, 亦非人所能損益也. 然陽主生, 陰主殺, 則其類有淑慝之分焉. 故聖人作易, 於其不能相無者, 既以健順仁義之屬, 明之而無所偏主, 至其消長之際 淑慝之分, 則未嘗不致其扶陽抑陰之意焉.”이라 하였음((備旨具解《原本周易》 卷二 8쪽)).

36) 이상 本 段落의 內容에 대한 景岳의 主張과 虛谷 先生의 그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醫門棒喝·論景岳書》에 상세히 실려 있음.

有餘하다고 하며 知母,黃柏으로 主를 삼고, 혹은 陽은 항상 不足하다고 하며 肉桂,附子로 宗을 삼는데, 모두 가지를 찾아 앞사귀를 따는 것이니, 可히 陰陽의 至理를 論할 수 있는 者들이 아니다. 陰陽의 至理에 밝지 못하고서 어찌 六氣의 變化를 알겠는가? 六氣의 變化를 알지 못하면 그 見解가 반드시 僻됨에 이르게 되니, 혹은 陽에 치우치고 혹은 陰에 치우친다면, 論證辨治((辨證論治))에 盡善을 期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聖經((여기서는 《內經》과 《傷寒論》을 가리킴))의 可히 萬世토록 遵守해도 弊端이 없는 것과 같지 않다.

六氣 陰陽의 이치를 궁구하고자 하는 者가 어찌 可히 溯流窮源((물길을 따라 올라가서 根源을 찾음))한 뒤에 常을 알고 變에 通하여 偏執의 害를 免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羲聖이 八卦를 劃하고 軒岐가 六氣를 論함이 모두 陰陽太極에 근본하였으니, 그 體는 同하지만, 《易經》은 治世를 論한지라 扶陽陰抑으로 主를 삼았고, 《內經》은 治病을 論한지라 陰平陽秘³⁷⁾로 宗을 삼았으니, 그 用이 不同하다. 用이 이미 不同한데 어찌 可히 《易》註를 끌어다가 醫理를 論할 수 있겠는가? 만약 扶陽抑陰으로 醫를 論한다면 반드시 偏勝의 害에 이를 것이다. 세속에 景岳을 誦하는 者들이 매양 《易》說을 끌어다가 治病하는데, 눈으로 은하수를 보고 스스로 高古하다고 이르며 乖僻한 데에 떨어져서 冥冥한 가운데에 사람을 헤치니, 모두 食古不化((옛 것을 배우되 소화하여 바로 알지 못함))하여 陰陽의 至理에 밝지 못한 까닭이다.

此篇을, 마땅히 뒤의 「太極五行發揮」 「人身陰陽體用論」 「論景岳書」

「原痘論」等³⁸⁾과 參看한다면, 陰陽生化의 道와 天人合一의 理致가 明皙하고 詳盡하여 遺蘊이 없을 것이다.

어떤 이가 묻기를, “《內經》은 天道의 秘를 法하여 六氣로써 後人에게 昭示하였는데, 이제 論中에 이르시기를, 火濕 二氣가 合하여 暑가 된다고 하시니, 감히 여쭙건대 火濕 二氣는 무엇으로 作하여 어디에 置니까(作何安置乎)?”

答하여 말한다. 大凡 經文은 모름지기 活看해야지 固執해서는 안된다. 經만

37) 《素問·生氣通天論》에, “故陽強不能密,陰氣乃絕,陰平陽秘,精神乃治,陰陽離決,精氣乃絕.”이라고 하였음.

38) 모두 《醫門棒喝·初集》에 실려 있는데, 「太極五行發揮論」 「人身陰陽體用論」은 卷之一에, 「論景岳書」는 卷之三에, 「原痘論」은 卷之四에 각각 실려 있음.

큼 後人에게 밝게(昭)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없는 데도 後人이 六氣에 밝지 못한
 지가 오래이다. 대개 經旨에는 六氣가 流行하는 理를 論한 것이 있고 六氣가 病
 이 되는 理를 論한 것이 있어서, 원래 구별이 있다. 예컨대 初之氣가 風木, 二
 之氣가 君火, 三之氣가 相火, 四之氣가 濕土, 五之氣가 燥金, 六之氣가 寒水라
 고 말한 것은 六氣가 流行하는 理를 論한 것이고, 風寒暑濕燥火라고 말한 것은
 六氣가 病되는 理를 論한 것이다. 自古로 暑를 相火病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서 이를 감히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는 (六氣의) 流行하는 理와 病되는
 理의 不同함을 알지 못한 때문이다. 내가 그러므로 가만히 그렇지 않다고 이르
 고서 火濕의 氣가 습하여 暑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經旨가 이와 같기 때문이다.
 시험삼아 보건대 經에 이르기를, “夏至日보다 먼저는 溫病이 되고 夏至日보다
 나중은 暑病이 되는데, 暑邪는 마땅히 汗과 함께 모두 出해야 하니 止하지 말
 라.”³⁹⁾고 하였다. 대개 溫은 熱의 漸으로 陽이 充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熱은 溫
 의 甚으로 陽이 盛極한 것인데, 陽이 盛極하면 陰이 生하여 乾卦가 姤(天風
 姤卦)로 變하는 象이니, 바로 夏至節에 해당한다. 經에 말하기를, “水火는 陰
 陽의 徵兆이다.”라고 하였으니, 故로 火가 微하면 溫이 되고 火가 盛하면 熱이
 되며, 水가 微하면 濕이 되고 水가 盛하면 寒이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陽이 盛
 極함에 陰이 生함이 곧 火가 盛極함에 濕이 生함이니, 一陰이 夏至에 生하면 그
 濕이 이미 動한 것인데, 濕이 비록 動했으나 相火가 司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夏
 至日보다 나중은 暑病이 된다고 한 것이니, 어찌 暑가 火濕 二氣가 相合해서 이
 루어짐을 表한 것이 아니겠는가? (六氣의) 流行하는 理와 病되는 理가 不同한
 바를 一‘暑’字를 써서 이를 구별한 것이다. 만약 暑가 相火病이라면 夏至 先後
 가 모두 相火가 司하는 때인데, 어찌 유독 夏至日에서 나누어 그 病名을 달리하
 여 溫이 된다 暑가 된다 하였겠는가? 그 까닭을 또한 생각해 볼 일이다.

그 火濕의 氣가 습하여 이루어진 까닭으로 病에 陰暑와 陽暑의 다름이 있으
 니, 혹 타고난 체질이 陽이 旺하거나 또는 熱을 感受함이 많으면 陽暑病이 되
 며, 혹 타고난 체질이 陽이 虛하거나 또는 熱을 感受함이 적으면 陰暑病이 된
 다. 만약 정말 暑가 相火病이라면, 火는 純陽인데 어떻게 陰暑가 (있을 수) 있

39) 《素問·熱論》에, “凡病傷寒而成溫者, 先夏至日者爲病溫, 後夏至日者爲
 病暑, 暑當與汗皆出, 勿止.”라 하였음.

겠는가? 그 暑는 汗과 함께 모두 出해야 하니 止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대개 濕火가 蒸騰하면 自汗하게 되는데, 汗이 出하면 濕이 去하고 火 또한 泄할 수 있으나, 或 그 汗을 止하면 濕이 壅滯되어 火가 나가지 못하도록 阻遏하여 變證이 蜂起하기 때문이다. 이를 말미암아서 六氣의 流行함과 病됨이 크게 不同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찌 可히 한갓 死句에 매달려서 活看하지 아니하고 理를 求할 수 있겠는가?

대개 六氣라는 것은 곧 이 五行에 火가, 陽이 되고 五行의 主가 되며 體用이 있어서, 저 四氣가 相從하여 化합이, 흡사 天下사람이 君相에게 聽命함과 같으므로 君相의 二火로 나누어서 六氣의 이름을 이룬 것이나, 其實은 한 火일 따름이므로 그 病됨에 있어서는 君火와 相火로 나눌 수 없다. 所以로 君相의 이름이 없이 그냥 한 火로 일컫고 一‘暑’字를 加하면, 六氣 流行의 名目과는 이미 크게 不同하(게 된)다. 그러므로, 夏至日보다 먼저는 溫病이 되니 이는 火만 있고 濕이 없음이고, 夏至日보다 나중은 暑病이 되니 이는 火濕이 相合함이라는 것을 또 申說하여, 火濕 二氣가 각각 一病이 되며, 火濕이 相合하여 또 一病이 되는데 그 이름을 暑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진실로 陰陽의 進退 消長이 곧 六氣의 流行인 때문이다. 그 偏旺하고 偏衰한 氣가 錯雜不齊함이 마치 聲韻에 緩急高下가 있음과 같다. 그러므로 나뉘어 五行이 되고 列하여 六氣가 됨이 꼭 聲韻에 節奏((樂曲의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마디))가 있어야 비로소 可히 차례를 따라 調和되어 平에 돌아감과 같으니, 이것이 聖人이 天地를 法則하여 參贊하고 化育하는 制度를 만드심이다. 이를 말미암아 말하건대, 六氣의 流行이 본래 一貫하여 이미 하나 하나 (별개의 것으로) 劃分할 수 없으나, 또한 섞여 순서가 없을 수도 없으니, 또한 造化自然의 理이다. 이제 火濕 二氣가 合하여 暑가 된다면 火濕을 (각각) 무엇으로 作하여 어디에 두었는가 라고 질문한 것은, 竹木 二物을 合하여 一器을 만들면 竹木이 다시 각각의 一器이 될 수 없으므로 무엇을 作하여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이르는 것과 같은 말이니, 그렇다면 六氣의 流行이 과연 竹木의 각기 一物이 됨과 같은가? 아니면 本來一貫하여 可히 彼此를 劃分할 수 없는가? 請컨대 다시 이를 생각해 보라.

또 묻기를, “어찌 中景이, “太陽中喝者, 白虎湯主之.”⁴⁰⁾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지 못하십니까? 白虎는 다만 火를 淸할 수 있을 뿐이고 去濕하는 藥物이 없으니, 暑에 반드시 濕이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답하여 말한다.甚하구나, 그대는 정말 固執스럽도다! 내가 論한 바는 暑氣이지 暑病이 아니다. 暑氣는 火濕이 相合하여 이루어지지만, 사람을 傷함에 이르러서는 또한 人의 타고난 체질을 따라 變하나니, 그대는 어찌 내가 前論 中에 “만약 人의 타고난 체질이 火가 많으면, 暑가 火를 따라 燥로 化한다.”고 말한 것을 보지 못하는가? 燥火의 氣가 습한 것이 바로 白虎湯證⁴¹⁾이니, 만약 타고난 체질이 寒이 많다면 暑가 寒을 따라 濕으로 化할 것인데, 寒濕의 氣가 습한 데에 어찌 白虎湯이 마땅하겠는가? 이러한 까닭으로 暑門의 古方에 大順散⁴²⁾·冷香飲⁴³⁾의 辛熱한 方劑가 있으며, 또 六和湯⁴⁴⁾·(藿香)正氣散⁴⁵⁾ 등의 溫燥한 方이 있고, 또 桂苓飲⁴⁶⁾의 兩淸濕火法((火熱과 濕을 함께 淸消하는 治法))이 있으니, 모두 仲景의 書의 缺을 補함이 된다.

또 仲景이 이르시기를, “太陽中熱者, 喝是也, 身熱而渴, 白虎加人參湯主之.”⁴⁷⁾라고 했는데, 이 말은 太陽中熱에 또 身熱而渴하면 이는 火가 盛하여 燥로 化하는

40) 《傷寒論》과 《金匱要略》에 이와 같은 條文은 없으며, 內容上 다음의 註 46)의 《金匱要略·痙濕喝病脈證》 第26條를 가리켜 한 말인 듯함.

41) 白虎湯((知母 6냥, 石膏(碎) 1근, 炙甘草 2냥, 粳米 6홉))은 陽明病으로 邪熱이 表裏에 充斥한 데에 쓰는데, 證은, 表裏有熱, 自汗出, 復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 面垢, 眄目, 遺尿, 脈浮滑, 或脈滑而厥 등의 症狀이 나타남.

42) 大順散(《太平惠民和劑局方》卷二): 甘草 30斤, 乾薑, 杏仁(去皮尖), 肉桂(去粗皮炙) 各 4斤. (先將甘草用百砂炒至八分熟, 次入乾薑同炒, 令薑裂, 次入杏仁同炒, 候杏仁不作聲爲度, 篩淨, 後入肉桂搗爲末, 每服二錢, 水煎服.)

43) 冷香飲子: ①(《楊氏家藏方》卷三): 草果子仁 2냥, 炙甘草 1냥, 陳橘皮(去白) 5돈, 附子(포) 2돈 반. ②(《張氏醫通》): 甘草, 附子, 草果子仁, 橘紅 各 1돈, 生薑 五片.

44) 六和湯(《太平惠民和劑局方》卷二): 縮砂仁, 半夏(湯泡七次), 杏仁(去皮尖), 人參, 炙甘草 各 1냥, 赤伏苓(去皮), 藿香, 白扁豆(薑汁略炒), 木瓜 各 2냥, 香薷, 厚朴 各 4냥.

45) ① 正氣散(《太平惠民和劑局方》卷二): 藿香, 白朮, 陳皮 各1냥, 炒甘草 7돈, 厚朴, 半夏 各3냥(二味爲末, 與生薑四兩研爛爲餅, 微炒).

② 藿香正氣散(《太平惠民和劑局方》卷二): 藿香 3냥, 炙甘草 2냥 반 大腹皮, 白芷, 紫蘇, 伏苓(去皮) 各1냥, 半夏麴, 白朮, 陳皮, 厚朴(去皮, 薑汁炙), 苦桔梗 各2냥.

46) 桂苓飲(《太平惠民和劑局方》卷二): 肉桂, 伏苓 各 等分.

47) 本條는 《金匱要略·痙濕喝病脈證》 第26條로서, 中暑 胃熱津傷의 證治를 논술한 것임.

證임을 可히 알 수 있으니, 證로 白虎로 主하라는 것이다. 그 前條에 이르시기를, “太陽中喝,發熱惡寒,身重而疼痛,其脈弦芤遲.”⁴⁸⁾라고 했는데, 시험삼아 묻건대, 身中疼痛하고 脈이 또 弦細芤遲하다면, 이는 濕이 있는 것이겠는가? 濕이 없는 것이겠는가? 그 脈證이 이와 같다면 白虎를 쓸 수 있겠는가? 아니면 쓸 수 없겠는가? 醫理를 대략 아는 者라도 또한 반드시 辨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條는 仲景이 일찌기 方을 두지 않았는데, 진실로 그 글이 殘缺된 까닭이거니와, 後賢이 淸暑益氣湯⁴⁹⁾이 適宜하다고 말했는데, 또한 備采할 만하다. 그러나 글이 비록 殘缺되긴 했지만 이 兩條에 입각해서 본다면, 하나는 火가 盛한 暑病이고 하나는 濕이 重한 暑病이니, 病이 人의 타고난 體質에 따라 變化하며 暑의 一氣가 火濕이 相合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지 아니한가? 이미 仲景의 글을 인용하여 證據하면서 어떠한 까닭으로, 단지 다음 條의 白虎證만을 들고 上條의 身重脈細한 濕證은 살피지 못했는가? 嗚呼라! 사람의 聰明과 智識은 有限한데 事物의 義理는 無窮하니, 所以로 古人이 孜孜히 窮理하기를 힘써가 되도록 쉬지 아니하고, 能하면서도 能치 못한 이에게 물으며, 많이 알면서도 적게 아는 이에게 물어서, 마음을 비우고 몸소 궁구하며 감히 自足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릇 聰明 博洽한 者는 自負하지 않는 者가 없으며, 自負하면 반드시 自用하는데, 진실로 一毫라도 自用함이 있으면 도리어 그 聰明함을 가리어서 그 理를 徹悟하지 못한다. 하물며 나는 淺陋하여 더욱 감히 옳다고 自信하지 못한다. 우연히 하나를 얻은 어리석음으로 가만히 經義를 發明하고자 함은 약간(聊) 옛 것의 未備함을 보충하려 함인데, 사람됨이 시원찮고 경박해서 能히 세상에서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진실로 그것이 마땅하겠지만(固其宜也)((그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말의 이치에 맞고 안맞고는, 天下가 크니 반드시 능히 이를 辨別한 者가 있을 것이다. 거듭 희망하건대 高明한 君子께서 다시 批駁을 加하여, 斯道를 크게 밝혀서 茅塞을 열어주기를 期하고자 한다면 實로 매우 다 행함이 되려니와, 만약 至理를 體會하지 아니하고 자기 한사람의 견해를 고집하

48) 上揭書 第25조에 나옴.

49) 淸暑益氣湯(《脾胃論》 卷中): 黃耆,制蒼朮,升麻 各 1돈, 人蔘,澤瀉,神曲炒, 橘皮,白朮 各 5푼, 麥門冬(去心), 當歸身,炙甘草 各 3푼, 青皮(去白) 2푼 반, 黃柏(酒洗) 2-3푼, 葛根 2푼, 五味子 9粒.

여 다투어 이기는 것으로 能함을 삼고, 道를 밝히기 위하여 所見을 내는 것이 아니라면, 또한 쓸 데 없는 말로 수고하지 말 일이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經文에는 ‘先夏至日爲病溫, 候夏至日爲病暑.’의 上文에 ‘凡病傷寒而成溫者’의 一句가 또 있는데⁵⁰⁾, 이제 선생께서는 斷章取義하시니, 과연 經旨에 모두 부합될 수 있겠습니까?”

答하여 말하기를, “嗚呼라! 이것이 바로 經文의 妙處로, 사람이 隅反하게 하고자 한 뜻이다. 대개 夏至前 純陽의 氣는 溫이라 이름하고, 夏至에 陰이 生함에 濕이 動하여 相火와 合一하여 그 氣가 이미 變하였으면 마땅히 暑라고 이름해야 함을 이룬 것이다. 設使 그 人이 처음에 寒邪에 傷했더라도 때를 지내서 發作했다면, 그 邪가 이미 時令의 氣를 따라서 變化했을 것이니, 반드시 마땅히 時令을 좇아서 그 病名을 붙여야 하니, 夏至보다 먼저는 溫이라 이름하고 夏至보다 나중은 暑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런 즉, 그 傷한 바가 본래 溫暑가 아니더라도 이 때에 發作한 것은 또한 마땅히 時令을 좇아 病名을 붙여야 하는 것이니, 그 溫邪에 感하고 暑邪에 感한 者를 어찌 도리어 마땅히 時令을 좇아 病名을 붙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反面을 들어서 正意를 托하면 말은 덜고서도 이치는 더욱 뚜렷하고 분명해진단다 함이다. 애석하도다, 후세에 能히 領會하는 이가 적고 각기 臆說을 내서 經中の 妙義를 辜負⁵¹⁾하는 者가 많음이어!”

또 여쭙건대, “論中에 이르시기를, 燥金의 氣는 風寒, 風熱을 말미암아 化한 바라고 하셨는데, 《靈樞》《素問》《難經》《傷寒論》을 (모두) 살피건대, 그러한 明文이 없습니다. 생각건대 반드시 근거한 바가 있어서 (그와 같이) 論하셨을 텐데, 그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答하여 말한다. 이는 六氣가 陰陽變化를 말미암아 이름 붙여졌음을 말한 것으로, 원래가 經中の 秘旨이나 쉽게 領略하지 못할 따름이다. 내가 염려하건대, 세상에서 六氣를 論하는 이가 혹 物의 각각 一物이 됨과 같이 (六氣를) 六種의 氣로 여긴다면, 能히 그 理를 會通하지 못할 것인데, 이름은 비록 여섯가지이나 實은 陰陽二氣의 進退일 따름이고, 陰陽(二氣)의 進退는 太極의 動靜일 따름임을 알지 못함이다.

50) 註 39)참조.

51) 辜負: (호의, 기대, 도움 따위를) 헛되게 하다. 저버리다.

무릇 太極이 動하여 陽을 生하면 陽은 나아가고 陰은 물러가는데, 動이 極하면 靜하며, 太極이 靜하여 陰을 生하면 陰은 나아가고 陽은 물러가는데, 靜이 極하면 다시 動하여 盈이 없이 순환한다. 陰陽은 太極의 用이고 太極은 陰陽의 體이다. 나아가는 것은 그 氣가 進長하여 그 生化의 用을 發하고, 물러가는 것은 그 氣가 退縮하여 그 太極의 體에 돌아간다. 靜이 極하여서 動하면 一陽이 至極한 陰의 下에서 生하는데((䷗地雷復卦)), 그 節氣를 이름하여 冬至라고 하니, 겨울의 陰이 極한 즈음을 당해서 一陽이 다시 至함을 이룬 것이다.

陽이 下에서 生하여 점차 나아가면, 위에 있는 陰을 沖激하여 陰寒이 더욱 厲하게 되므로 冬至後에 날씨가 더욱 차가워지니, 小寒·大寒의 절기가 있는데, 이 때는 이미 二陽이 下에서 生한 때이다((䷗地澤臨卦)). 陽氣가 점차 나아가서 微動하면 風이 되는데, 이름을 風木이라 하니, 木의 萌芽를 象함이다. 그러므로 風은 陰中の 陽((少陽))이 되며, 風木의 氣((初之氣))는 大寒節부터 시작된다.

이윽고 四陽이 下에서 生함((䷲雷天大壯卦))에 이르게 되면, 陽은 旺하(여지)고 陰은 弱하여(저서), 따뜻한 氣가 沖融함이 불이 타기 시작함과 같으니(如火始燃) 이름을 君火라고 하는데, (二之氣인 少陰) 君火의 氣는 春分節에 시작된다. 그 뒤에 六陽이 모두 나오면 ((䷀重乾天卦)), 陰이 모두 歸藏하여 불꽃이 활활 타오름과 같으니(如火發燄) 이름을 相火라고 하는데, (三之氣인) 相火의 氣는 小滿節에 시작된다. 불이 타기 시작할 때 그 體가 靜함은 君의 神明이 端拱하고 南面하여 함이 없음과 같고,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 그 用이 이에 張함은 宰相이 그 經綸을 내서 天下를 利濟함과 같으므로, 이 때를 당해서 萬物이 茂盛하게 된다. 太極이 動함이 極하면 靜하여 一陰이 至極한 陽의 아래에서 生하는데((䷶天風姤卦)), 그 절기를 이름하여 夏至라고 하니, 여름에 陽이 極한 즈음을 당해서 一陰이 또 至함을 이룬 것이다.

陰이 아래에서 生하여 점차 나아가면, 위에 있는 陽을 沖激하여 陽炎이 더욱 치성하여지므로 夏至後에 날씨가 더욱 더워지니(熱), 小暑·大暑의 節氣가 있는데, 이 때는 이미 二陰이 아래에서 生한 때이다((䷵天山遯卦)). 陽은 밖에서 盛하고 陰은 안에서 자라므로 暑는 陽中の 陰이 된다. 무릇 陽氣가 微動하면 風이 되고, 陽氣가 이미 旺하면 火가 되며, 陰氣가 微動하면 濕이 되고, 陰氣가 이미

旺하면 寒이 된다. 二陰이 아래에 있으니 陰氣는 아직 微하고, 四陽이 위에 있으니 陽氣는 오히려 旺하다. 그러나 陰氣가 비록 微하나 날로 나아가므로 濕氣가 위로 蒸하니 이름을 濕土라고 하는데, 濕이 土中을 말미암아 升함을 이룬 것이니, 雨濕이 위에서 내리는 것과는 다름이 있다. 濕土의 氣((四之氣))가 비록 大暑節에서 시작되나, 그러나 相火가 司令하는 때에 當하여 一陰이 이미 아래에서 動함에 濕이 벌써 動하였고, 二陰이 生한 때에 이르러 濕이 盛하여 위로 蒸하다가, 三陰이 生한 때((䷋天地否卦))에 (이르면) 陽氣이 兩平하여 각각 그 자리를 지키므로 熱이 덜하고 濕이 겹치나, 그러나 오히려 그 절기를 이름하여 處暑라고 하니, 이 때에는 아직 餘暑가 있음을 이룬 것이다. 이를 말미암아 보건대, 暑가 火濕의 氣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더욱 알 수 있다.

으윽고 四陰이 아래에서 生하여((䷍風地觀卦)) 二陽이 위에 있으면, 陰은 旺하(여지)고 陽은 微하(여지)니, 微陽은 위로 動하여 風이 되고 盛陰은 아래로 凝하여 寒이 되므로, 濕이 겹치고 도리어 燥로 化하게 되니 이름을 燥金이라고 하는데, 燥金의 氣((五之氣))는 秋分節에 시작된다.

대개 陰陽의 進退는 旺한 것이 權을 잡고 微한 것이 그를 좇아 化하는데, 陽性은 動하며 施泄하니, 陽이 旺하면 陰이 陽의 施泄함을 좇아 散漫하여((흩어져 퍼져서)) 濕으로 化하고, 陰性은 靜하며 翕闔하니, 陰이 旺하면 陽이 陰의 翕闔함을 좇아 凝斂하여 燥로 化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季冬의 二陽은 아래에 있고 四陰은 위에 있으니, 風이 아래에서 動하고 寒이 위로 凝하여, 그 陽이 陰을 좇아 燥로 化하면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는데, 다만 陽氣가 점차 나아감을 因하니, 나아가는 것을 爲主하므로 燥라고 이름하지 않고 風이라고 이름한다. 仲秋에는 二陽이 위에 있고 四陰이 아래에 있어서((䷍風地觀卦)) 風이 위에서 動하고 寒이 아래에서 凝하는데, 또한 陽이 陰을 좇아 燥로 化하므로 萬物이 堅干해지나((단단해지고 메마르게 되나)), 陰氣의 점차 나아감을 爲主하므로 風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燥라고 이름한다. 또 예컨대 仲春의 二陰은 위에서 내려오니 雨水가 많고, 季夏의 二陰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므로 蒸濕이 많다. 이를 보건대 陰陽의 升降에 따라 燥濕으로 變化하는 이치를 더욱 알 수 있다. 仲春에 陽이 아래에서 旺하여 위로 나아가면 점차 따뜻해지다가, 비를 만나면 차가워지니, 陰이 陽을 冒하기 때문이며, 仲夏에 陽이 위에서 旺하다가 점차 내려오면

도리어 熱이 많아지니, 陰氣가 위로 逼迫하기 때문이다. 陽氣가 旺한데 微陰이 이를 冒하거나 逼迫하면, 鬱發, 奮發하여 雷가 되므로 春夏에 우뢰가 많으며, 陰陽이 兩平한 때로부터 陰이 旺할 때까지는 陽이 점차 伏藏하여 능히 奮發하지 못하므로 秋冬에서 초봄까지는 우뢰가 없으니, 우연히 혹 있더라도 客氣의 偏盛함을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알면 또한 人이 邪를 위로부터 受하는 경우와 아래로부터 受하는 경우의 差異를 辨別, 徵驗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陰陽 進退의 氣를 말한 것이며, 만약 人身中에 陰이 旺하다면 寒이 많으니 능히 熱藥을 受하고, 陽이 旺하다면 火가 많으니 能히 涼藥을 受하며, 陽이 虛하면 濕을 生하기 쉽고, 陰이 虛하면 燥로 變하기 쉬우니, 또한 스스로 不同하다. 그러므로 六氣의 流行과 病됨은 본래 마땅히 구별해야 하지만, 人의 타고난 體質이 각기 다르니, 그 變化를 可히 窮盡할 수는 없다.

무릇 物이 濕을 만나면 썩고 燥를 만나면 단단해지는데, 단단한 것으로는 金만 한 것이 없으니, 所以로 燥氣를 金이라고 이름한다. 이때를 당해서는 二陽이 위에서 動하여 風이 되나, 혹 客氣의 二火가 加臨하면 涼風이 變해서 熱風이 된다. 그러나 四陰이 아래에서 旺하여 凝하여 不動하니, 능히 陽을 좇아 濕으로 化하지 못하며, 熱風이 위에서 冒하여 더욱 그 燥함을 더한다. 그러므로 나는 燥氣가 風寒, 風火를 말미암아 化한 바라고 이르니, 바로 이것이 經中の 秘旨이다.

이윽고 六陽이 歸藏하여((䷁重坤地卦)) 陰盛함이 水와 같으면, 涼이 變해서 寒이 되니 이름을 寒水라고 하는데, 寒水의 氣((六之氣))는 小雪節에 시작된다.

六氣가 이미 周해서 一歲의 序를 이루었는데, 이를 말미암아 본다면, 六氣는 본래 陰陽이 變化한 바이니, 이름은 비록 여섯이나 實은 陰陽 二氣의 進退일 따름이며, 陰陽의 進退는 太極의 動靜일 따름이니, 經論에는 비록 明文이 없으나 義理가 일찌기 그 가운데에 있지 않은 적이 없다. 진실로 醫經과 易經이 陰陽 太極의 源에서 同出한 것으로 이른바 前聖 後聖이 그 揆가 하나라고 함이니, 어찌 두 理致가 있겠는가?

또 六氣의 流行과 病됨이 經旨에 원래 구별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를 忽略한 경우가 많았다. 가령 燥金이 流行하는 氣는 가을에 配列되나, 그 病됨에 이

르러서는, 가을철에 진실로 燥病이 많기는 하지만 또한 風寒濕火의 病도 있으며, 가을철이 아니더라도 또한 燥病이 있으니, 風寒, 風熱이 化하는 바와 같다. 그것이 그러한 까닭(所以然)은, 主氣는 常이 있으나 客氣는 變換하니, 客氣가 主氣上에 加臨하여 參差 錯雜하면 變化가 出하기 때문이다. 대개 主氣는 地에서 出하는데 地는 靜하여 不動하니 그 氣가 升降하되 常이 있으며, 客氣는 天에서 降하는데 天은 動하여 轉旋하니 그 氣가 運行하여 變換한다. 그러나 모두 陰陽의 進退와 偏旺 偏衰의 이치를 벗어나지 는 못한다. 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規矩를 줄 수는 있어도 사람이 巧하도록 할 수는 없다.”⁵²⁾고 하셨는데, 《內經》의 六氣를 配列함 또한 사람에게 規矩를 보여준 것에 不過할 따름이다.

대저 濕土는 四季에 旺하고 中을 主하는데, (六氣의) 流行하는 次序에 따라 비추어 본다면, 大暑節에 濕土의 氣가 交하여 60일 남짓이 되나, 其實 旺氣의 用事는 또한 18일에 불과하다. 經이 六氣로써 一歲의 序에 配하였은 즉 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지만, 그 陰陽 進退의 機를 궁구해 본다면, 濕이 이미 夏至의 陰이 生한 날에 動하였으나, 그때는 바야흐로 아직 相火가 司令하고 있어서 濕이 動함에 氣가 變하므로, 經에 특별히 表明하여 말하기를, “先夏至日爲病溫, 後夏至日爲病暑.”라고 한 것이다. 後世에 經旨에 밝지 못하고 規矩를 死守하여, 相火가 司令함을 因하여 마침내 暑를 相火病으로 여겼는데, (이는) 夏至前 또한 相火가 司令하는데 (夏至日 前은) 어째서 또 溫病이라고 이름했는 지를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이다. 이미 執迷((잘못된 것을 고집함))하여 능히 融會하지 못하니, 마침내 또한 土가 四季에 旺함을 살피지 않고 濕土의 氣가 가을에 行한다 하여, 이에 가을 前半截은 濕에 傷하고 後半截은 燥에 傷한다는 등의 臆說⁵³⁾을 두니, 實로 足히 사람으로 하여금 배를 잡고 웃게 할 만하다. 어찌 歲時로써 이를 徵驗해 보지 않는가? 夏至後에 潮濕이 크게 盛해지는데 그때는 相火司令이 오히려 [아직] 한 달이 (더 남아) 있으며, 立秋 後에는 潮濕이 곧 걷히는데 그

52) 《孟子·盡心章句下》 第5章에, 孟子曰: “梓匠輪輿, 能與人規矩, 不能使人巧.”라 하였음.

53) 이는 吳鞠通의 《溫病條辨》 下焦篇에 나오는 말인데, 그 자세한 내용과 批駁은 《醫門棒喝·素問辨疑》((大星文化社 刊, P.171-172))를 참조.

때는 濕土司 습이 오히려 [아직] 한 달이 (더 남아) 있으니, 이를 말미암아 본다면 相應하지 않는데, 어찌 可히 拘執하겠는가?

만약 陰陽 進退의 理에 따라 氣候를 살핀다면 符節과 같이 부합된다. 대개 五月 夏至에 一陰이 아래에서 始生하면, 陰은 弱하고 陽은 旺하여 陰이 陽을 좇아 濕으로 化하나, 七月 立秋에 三陰이 아래에서 生하여 陰陽이 兩平되어 각각 그 자리를 지키면, 濕으로 化하지 않고 潮氣가 곧 건히며, 八月에 四陰이 아래에서 生하여 陰이 旺해지고 陽이 弱해지면, 陽이 陰을 좇아 燥로 化한다. 그러므로 經에 “여름에 暑에 傷하면”이라고 말한 것에는 火濕 二氣가 이미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그 가을에 燥에 傷하면”, “겨울에 寒에 傷하면”, “봄에 風에 傷하면”이라고 말하였은 즉⁵⁴⁾, 四時 六氣의 意義가 이미 完全하다. 이와 같이 各篇의 經文을 參究한다면, 서로 印證되어 스스로 可히 不易의 理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예전대 今年 夏至前에는 매우 혹독하게 뜨거웠는데, 夏至後 六月에는 도리어 서늘하다가, 立秋後에는 또 뜨거워 往年과는 크게 달랐는데, 어째서인가? 대개 今年 丙戌年에는 太陽寒水가 司天하는데, 夏至前에는 六陽이 鬱退되어 宣泄되지 못함에 사람이 氣交의 中에 있으므로 매우 뜨겁게 느끼다가, 夏至後에 미쳐서는 陰이 아래에서 生하여 陽이 점차 물러간 즉, 寒水 客氣가 勢를 틈타 내려온 까닭으로 六月엔 도리어 서늘했(던 것이)다. 立秋後에 이르러서는 三陰이 아래에서 生하여 陽氣가 더욱 물러갔을 텐데, 어째서 도리어 뜨거웠는가? 寒水 客氣가 이미 물러감에 風木 客氣가 加臨하니, 비록 단지 三陽이 위에 있으나 風이 火勢를 도와 陽氣가 다시 振作된 까닭으로 도리어 六月보다 뜨거웠(던 것이)다. 이를 말미암아 보건대, 主客 六氣의 流行은 반드시 마땅히 陰陽進退의 理를 參參한다면 진실로 確然히 可히 徵驗할 수 있는 점이 있거니와, 혹 固執하여 能히 融會하지 못한다면, 비록 經論을 익숙하게 외운들 또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54) 註 61) 참조. 단, 《內經》 原文에는 “秋傷于濕, 上逆而咳”로 되어 있는데, 虛谷 先生은 ‘濕’字를 마땅히 ‘燥’字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引用할 때에 “秋傷于燥”로 고쳐서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論述이 《醫門棒喝·素問辨疑》에 있음.

또 여쭙건대 論中에 이르시기를, “혹 겨울에 寒에 傷하여 봄에 이르러 發함에 溫病이 되는데, 이는 邪가 오랫동안 鬱함을 因하여 變한 것이다.”라고 하신 一說은, 또한 程郊清⁵⁵⁾·周禹載⁵⁶⁾에게서 나와 일어났는데, (과연) 邪가 오랫동안 鬱함에 變한다 함이 옳습니까?

답하여 말한다. 사람은 天地의 氣를 稟하여 生하므로 人身의 氣가 天地와 더불어 貫通함이 물고기가 물에 있음과 같으며, 天地陰陽의 氣에 치우침이 있거나 또는 阻滯되면 人身의 氣가 不調하여 病들이 물고기가 더러운 물을 만남과 같다.

대저 氣機가 이미窒하였다면, 陰은 鬱하여 痰涎을 이루고 陽은 鬱하여 壯火로 變하는데, 그 感한 바의 邪가 鬱함을 因하여 變함은 實로 多端함이 있어서 능히 盡悉할 수 없으니, 혹은 人身의 氣를 따라 변하고, 혹은 時令의 氣를 따라 變하고, 或은 感함을 따라 변하고, 혹은 오랫동안 鬱하였다가 변하고, 혹은 끝내 不變하기도 하여, 한결같이 一定함이 없다.

大抵 人의 타고난 體質과 陰陽 強弱이 不同함을 말미암아 邪의 感受에 輕重이 한결같지 아니하므로 參差함이 이와 같다. 가령 傷寒이 傳裏하여 熱로 變했다면, 이는 邪가 身中の 氣를 따라 곧 變한 것이다. 만약 寒이 陰經에 入했는데 곧 吐利 厥逆했다면, 이는 邪가 不變한 것이다. 만약 오랫동안 잠복하여 發하지 않다가 時氣가 觸引함을 因하여 發病했다면, 이는 邪가 時令의 氣를 따라서 변한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다 서술하기는 어렵다. 저 寒은 至陰의 邪가 되는데도 또한 能히 鬱함에 熱로 變할 수 있는 즉, 저 五氣((風暑濕燥火))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음) 더욱 可히 알 수 있다. 經에 말하기를, “風은 잘 行하며 자주 變한다.”⁵⁷⁾고 하였고, 劉河間은 “六氣는 모두 火를 좇아 化한다”고 말

55) 程應모: 淸初의 醫家. 字는 郊淸. 新安人. 平生 仲景學說을 연구하여 상당히 心得한 바가 있었음. 저서에 《傷寒論後條辨(直解)》《醫經句解》 등이 있음.

56) 周揚俊: 17세기 中葉의 淸代醫家. 字는 禹載. 江蘇 蘇州人. 어려서 科擧工夫를 했으나 여러번 실패하여, 나이가 40에 가깝자 科擧工夫를 그만 두고 醫學을 배웠다. 仲景의 醫學을 10餘年 研究하고, 辛亥年間(1671年)에 京師에 가서 王公 等を 많이 治療하였다. 《溫熱暑逆全書》(1676年 刊行)을 撰輯하였고, 《傷寒論三注》(1683年 刊行)을 撰하였으며, 元代 趙二德(良仁)이 衍義한 《金匱玉函經》을 補注하여 《金匱玉函經二注》(1667年 刊行)를 만들었고, 또 葛可久의 《十藥神書》에 注釋을 加하였다.

했는데, 참으로 風火는 陽이 되어 性質이 動하는 것이라, 혹 拂鬱함을 만나면 各 氣가 이를 좇아 變化하기 때문이다.

또 여쭙건대 經에 이르기를, “겨울에 寒에 傷하면, 봄에 반드시 溫을 앓는다.”⁵⁸⁾고 한 것은 伏氣가 病이 됨을 말한 것인데, 後世에 겨울에 寒邪에 傷한 것이 伏藏하였다가 봄에 이르러서 發하여 溫病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 또한 穿鑿입니다. 시험삼아 보건대, 「四氣調神論」⁵⁹⁾에 이르기를 “겨울 적달 이를 閉藏이라고 하는데, 물이 얼고 땅이 갈라지니 陽을 擾動시키지 말라. 이를 거스리면 腎을 傷하여 봄에 痿厥이 되니, 生을 奉함이 적어서이니라.”⁶⁰⁾하였고, 또 말하기를 “冬氣를 거스르면 少陰이 藏하지 못하고 腎氣가 홀로 沈한다.”⁶⁰⁾고 하여, 겨울에 寒에 傷한 경우와 같은 뜻을 서로 發明하고 있습니다. 大抵 本身의 氣가 損傷을 받는 것이라면, 伏邪를 마땅히 伏氣라고 해야 옳으니, 대개 經은 그 理를 統論하는지라 원래 渾融함에 屬하지만은, 穿鑿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답하여 말한다. 詳考하건대, “겨울에 寒에 傷하면, 봄에 반드시 溫을 앓는다.”고 한 말의 뜻은 外感에 屬하고, 「四氣調神論」에서 말한 바는 內傷에 屬하니, 겨울에 藏精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다고 이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각기 義理가 있으니, 함께 論함은 옳지 않다.

만약 두 곳의 經文을 나란히 놓고 본다면, 저기서는 “冬傷於寒”, “春傷於風”이라 했고, 여기서는 “逆之則傷腎”, “逆之則傷肝”이라고 했는데, 무릇 “傷寒”, “傷風”이 어찌 外邪의 病이 아니겠으며, “傷腎”, “傷肝”이 어찌 內傷의 病이 아니겠는가? 經旨가 원래 각기 不同하여 文義가 이와같이 明顯하거늘, 理를 따라 直解하지 않고 도리어 隱僻한 데서 이를 찾으니, 이는 道가 가까이 있는데 이를 멀리서 求함이라, 미혹됨이甚한 것이다. 또 보건대 「生氣通天論」에 이르기를, “봄에 風에 傷하여 邪氣가 留連하면 이에 洞泄이 되며”라고 한 데에서, “겨울에 寒에 傷하면 봄에 반드시 溫病을 앓으니, 四時의 氣가 번갈아 五臟을 傷한

57) 《素問·風論》에 나옴.

58) 《素問·生氣通天論》에 나옴.

59) 《素問·四氣調神論》에 나옴.

60) 上同.

다.”⁶¹⁾고 한 데에 이르기까지의 一節에, 이미 “邪氣留連”이라 하였고, 또 “四時之氣, 更傷五臟”이라 하였으니, 外邪가 病됨을 가리킨 것이 더욱 확실한데, 어찌 可히 「四氣調神論」의 內傷을 論한 것과 混同하여 分別하지 아니 할 수 있겠는가? 장차 후학들로 하여금 무엇을 準則으로 삼게 하려는가? 또한 伏氣가 病이 된다고 하는 것은 伏邪가 病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의 切當함만 같지 못하니, 어찌서인가? 대개 氣란 邪正의 總稱이며, 醇和한 것은 正氣라고 이름하니 人을 養하고, 駁雜한 것은 邪氣라고 이름하니 人을 病들게 한다. 능히 人을 病들게 하는 것은 모두 마땅히 邪라고 이름해야 하니, 다만 天地의 氣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만약 七情이 妄動하면 人身의 元氣가 그로 인해 火로 化하여 病이 되니, 즉 邪火라고 이름한다. 만약 伏氣가 病이 된다고 말한다면, 天地 人身의 氣가 모두 流行하여 쉬지 않는데, 또한 어찌 伏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人은 天地의 氣를 稟하여 生하고 天地의 氣에 의뢰하여 養하는데, 氣가 어찌 人을 病들게 할 수 있겠는가? 그 人을 病들게 하는 것은 必是 駁雜한 邪氣임을 可히 알 수 있다. 처음 感할 때에 本元이 아직 困하지 아니하면 邪가 伏하여 깨닫지 못하나, 이미 오래되어 邪의 勢가 盛張((發虐))하면 病이 發하니, 내가 그러므로 伏邪가 病이 된다고 하는 경우의 切當함만 같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 여쭙건대 論中에 “君火와 相火가 腎에 寓한다.”고 하신 말씀은, 비록 古今에 이를 論했으나 鑿鑿((鮮明, 確實))하여 가만히 異議가 없다고 이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명히 그 寓((居處))가 있어서 腎에 審하는((업혀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답하여 말한다. 君火 相火는 함께 先天混元에서 나왔다. 渾元((混元))이 이미 判別되어 陰陽이 되면 卦象이 乾南坤北하고, 陰陽이 相交하여 水火로 變하면 卦象이 離南坎北하는데, 離는 人의 心을 象하고 있고 坎은 人의 腎을 象하고 있으니, 自古로 相火가 腎에 寓한다고 이른 것은 坎中の 一陽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象을 觀하면 그러하지만 理를 論한다면 다 그러하지는 아니하니, 어떠한 까닭인가?

61) 《素問·生氣通天論》에, “是以春傷于風, 邪氣留連, 乃爲洞泄. 夏傷于暑, 秋爲痲痺. 秋傷于濕, 上逆而咳, 發爲痿厥. 冬傷于寒, 春必溫病. 四時之氣, 更傷五臟.”이라고 하였음.

대개 비록 君相의 이름이 있으나, 實은 다만 一火이며, 體用의 구분이 있음에 不過할 뿐이다. 寂然히 不動한 때를 當하여 오직 靈光이 炯炯하고 조금도 하는 바가 없으면 다만 君火만 있어서, 實로 이른바 相火가 있음을 보지 못하나, 만약 七情이 문득(乍) 動하면 相火가 바로 나타나니, 예컨대 色欲이 動하면 外腎이 舉하고((발기되고)), 怒가 發하면 肝氣가 逆하는 類라, 다 헤아리기 어려운데, 이는 相火가 君火를 따라 動하되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이니, 또한 穿鑿해서 腎에 있다고 말함은 옳지 않다. 더우기 수면 중에는 君火가 아래에 潛藏하고 있다가, 子時後에 陽이 舉하면 天地의 陽을 따라 動하니, 그것이 君火와 더불어 함께 先天渾元에서 나온 것임을 可히 알 수 있다. 嗚呼라! 이를 말미암아 보건대, 相火의 來歷과 寓止를 좇아 可히 생각해 알 수 있으니, 그 本體는 實로 다만 一火일 뿐인데, 後世에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또 雷火 龍火⁶²⁾로 나누니, 名目이 더욱 많아져서 더욱 미혹을 滋繁케 했는데, 이는 그 用이 여러가지가 있는 것만 보고 그 體가 하나인 것은 알지 못함이다.

〔按語〕: 溫病과 暑病을 구분하는 표준에 대해서는 諸家の 說이 일치하지 않으나⁶³⁾, 虛谷 先生과 같이 《素問·熱論》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素問·五運行大論》의 “南方生熱, 熱生火, 火生苦, 苦生心, 心生血, 血生脾, 其在天爲熱, 在地爲火, 在體爲脈, 在氣爲息, 在藏爲心, 其性爲暑.”라고 한 말에 근거하여 暑病을 火熱의 病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으나, 거기서의 暑는, 다른 東方·中央·西方·北方의 경우에 각각 “其性爲暄”, “其性靜廉”, “其性爲涼” “其性爲凜”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六氣의 暑를 말한 것이 아니며, 더우기 그 上段에서 “燥以乾之, 暑以蒸之, 風以動之, 濕以潤之, 寒以堅之, 火以溫之.”라고 했는데, ‘찜다(蒸)’는 것은 水의 濕氣와 火의 熱氣가 아울러져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暑가 火濕이 습한 氣임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症候上으로 보면, 溫病

62) 雷火: 肝陰虧損으로 因한 虛火.

龍火: 腎陰虧損으로 因한 虛火.

龍雷之火: 肝腎의 陰不足으로 因해 發生되는 虛火.

63) 程士德, 《內經》, 人民衛生出版社, 1990, P. 353 을 참조.

은 “汗出, 不惡寒, 身熱而渴”하고, 暑病은 “汗出, 惡寒, 身熱而渴”한다.⁶⁴⁾

Ⅴ. 結 論

以上을 考察한 결과 虛谷 先生은 天人合一의 道와 醫易同源의 觀點에서 《周易》의 陰陽變化原理과 《內經》에 根據하여, 卦象을 가지고 六氣陰陽의 流行變化하는 理致와 病되는 理致를 매우 精辟하게 闡述하였는 바,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六氣란 風寒暑濕燥火로 서로 각각 다르며 變化가 無窮하지만, 要諦는 陰陽을 벗어나지 않으며, 陰陽은 太極인 混元一氣를 말미암아 生한다.
2. 六氣는 陰陽을 말미암아 化한 바이나 여전히 陰陽의 體를 떠나지는 않으니, 이러한 까닭으로 寒은 陰이 되고, 火는 陽이 되며, 風은 陰中の 陽이 되고, 暑는 陽中の 陰이 되며, 濕은 陰이 되는데 火와 더불어 습하면 暑라 이름하며, 風이 火와 더불어 습하면 熱燥로 化하니 陽에 屬하고, 風이 寒과 더불어 습하면 清燥로 化하니 陰에 屬한다.
3. 五行의 火는 하나인데 六氣의 火가 둘인 것은, 六氣變化的 機權이 火에 있는 까닭에 이를 體用으로 나누어, 體인 天地의 神明 主宰를 君火라 하고 陽氣가 流布하여 化生하는 用을 相火라고 한 것이니, 體用으로 나누면 비록 둘이지만, 그 根源을 궁구해 본다면 其實 一火일 따름이다 (虛谷 先生은 또 君火와 相火의 관계에 대하여 不可分離의 體用관계로 보아 其實은 相火일 따름이라고 하였는데, 心性理氣의 측면에서 볼 때, 君火는 心 또는 性, 理의 측면으로, 相火는 氣의 측면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思料된다.)
4. 人은 天地와 한 뿌리인지라 그 生理 構造가 天地와 相應하니, 이것이 天人合一의 道이며, 一身에 太極의 體를 具하니 一小天地가 된다.
5. 六氣는 流行하는 理와 病되는 理로 원래 區別이 있는데, 예컨대 初之氣가 風木, 二之氣가 君火, 三之氣가 相火, 四之氣가 濕土, 五之氣가

64) 李克光 主篇,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1989, P.78 을 참조.

- 燥金, 六之氣가 寒水라고 말한 것은 六氣가 流行하는 理를 論한 것이고, 風寒暑濕燥火라고 말한 것은 六氣가 病되는 理를 論한 것이다.
6. 虛谷 先生은 六氣를 物의 각각 一物이 됨과 같이 六種의 氣로 여긴다면, 능히 그 理를 會通하지 못할 것이니, 이름은 비록 여섯가지이나 實은 陰陽 二氣의 進退일 따름이고, 陰陽의 進退는 太極의 動靜일 따름임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六氣變化를 모두 陰陽進退에 따른 卦象의 六爻變化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7. 歷來로 六淫의 暑를 相火病으로 보았는데, 오직 虛谷 先生은 《素問·熱論》과 周易의 陰陽變化 原理에 根據하여, 五月의 盛極한 火가 夏至의 一陰이 生하여 濕이 動함에 따라 變化하여 火濕合氣의 暑가 되며 人이 이를 感하면 그 體質을 따라 變化하여 陽暑나 陰暑가 된다고 보았다.
8. 虛谷 先生은 또 丹溪의 “陽常有餘, 陰常不足”說과 景岳의 “陽常不足, 陰常有餘”說에 대하여 모두 醫理를 바로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치우친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醫家는 고정된 어느 한 法에 집착해서는 아니되며, 오직 “陰平陽秘”를 宗으로 삼아 時令 내지 六氣의 變化와 患者의 體質의 차이와 病情의 변화에 따라 辨證하여, 그 마땅함을 좇아 施治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參 考 文 獻 >

1. 表天根·洪元植, 「黃帝內經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慶熙大學敎韓醫科大學 論文集, 1983.
2. 李經緯 主篇, 中醫人物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8.
3. 章楠, 靈素節注類篇(醫門棒喝 三集),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4. 張岱年 主篇, 中華思想大辭典, 吉林人民出版社, 1991.
5.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6. 洪元植 篇, 精校黃帝內經,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1.
7. 成都中醫學院 篇, 中醫學常用名詞解釋,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6.

8.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篇，中韓大辭典，高大民族文化研究所，1989
9. 商務印書館編輯部 篇，辭源(縮印合訂本)，홍콩，商務印書館 香港分館，1989.
10. 韓醫學古典研究所，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篇，韓醫學大辭典〔基礎理論篇〕，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9.
11. 韓醫學古典研究所，韓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篇，韓醫學大辭典〔醫史文獻篇〕，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1985.
12. 朱震亨，格致餘論·相火論，서울，여강출판사 刊，中國醫學大系14 所載，1987.
13. 李東垣，脾胃論·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서울，大星文化社 刊，東垣十種醫書 所載，1987.
14. 張介賓，景岳全書，서울，大星文化社，1989.
15. 張介賓，類經圖翼(附類經圖翼)，서울，大星文化社，1982.
16. 章虛谷，醫門棒喝，서울，大星文化社，1989.
17. 備旨具解，原本周易，朝鮮圖書株式會社，1923年.
18. 彭懷仁 主篇，中華名醫方劑大全，北京，金盾出版社，1990.
19. 江克明·包明憲 編，簡明方劑辭典，上海科學技術出版社，1989.
20. 成百曉 譯註，懸吐完譯 孟子集註，서울，傳統文化研究會，1991.
21. 成百曉 譯註，懸吐完譯 論語集註，서울，傳統文化研究會，1990.
22. 湖南省中醫藥研究所 李聰甫·劉炳凡 篇，金元四大醫家學術思想之研究，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23. 李克光 主篇，金匱要略(高等中醫院校教學參考叢書)，북경，人民衛生出版社，1989.
24. 張啓基·王輝武 合篇，傷寒論手冊，重慶，重慶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1984.
25. 印會河·張伯訥 主篇，中醫基礎理論，人民衛生出版社，1989.